

조선시대 도시연구를 위한 地理志의 기초연구

- 『東國輿地志』·『輿地圖書』·『輿圖備志』·『大東地志』를 중심으로 -

Review of Geography Books for Joseon Dynasty Urban Research

- Focused on Donggukyeoji, Yeojidoseo, Yeodobiji and Daedongjiji -

강 서 연*

Kang, Seo-Yeon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윤 인 석

Yoon, In-Suk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on reinterpreting the geography books in Joseon dynasty as records of the cities and consequentl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rther urban research. Geography books of Joseon dynasty are valuable references to understand the national policy, and imply that the focus of the contents is on the system. Especially, military system is an important concept to understand city type in that period, relationships between cities, selection of location, etc. The results of review are as following:

First, military system is not a permanent fixture and therefore reflects changes in urban policies along with the history. The system suggests valuable clues on urban development as it is state-run, and closely associated with national land development.

Second, counties and prefectures under jurisdiction of district called Eupchi(邑治) had cities as important as or even more important than local government such as Yeong-a(營衙), Jinbo(鎭堡), Yeok(驛: administrative cities). Such special regions need to be studied as other type of cities in Joseon dynasty by defining thei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roles.

Third, the relationship of cities such as Eupch, Yeong-a, and Jinbo, was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local military system. Eupchi, administrative city, along with Yeong-a and Jinbo evolved into a military city as it became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characteristics of Yeok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ch new inter-city relationship.

Fourth, considerations which should be reviewed in the geography based on this concept can be mainly classified into architecture and landscape. This will also lay the foundation, and suggest new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for Eupchi, Yeong-a, Jinbo, and Yeok.

Fifth, description of the geography looks simple at first sight, but with thorough understating on the system, there are chances to interpret objective reasoning of position and landscape in the overall flow of region, area, etc. Bongsu(烽燧), signal-fire, can be an object of comparison with geographical features and position. Furthermore, advantageous position is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element showing the major context of the region.

주제어 : 邑治, 邑誌, 군사제도, 경관, 大東輿地圖, 古地圖, 地理志

Keywords: Eup-government(Eupchi, Eup-settlement), Eupji, military system, landscape, Daedongyeojido, old map, geography book(Jiriji, topography book)

* Corresponding Author : logspiral@hanmail.net

1. 서론

전통도시¹⁾를 정의할 만한 명확한 개념이나 이론이 전무한 상태에서, 각 읍을 일원화된 체제에 따라 정리한 문헌은 이미 그 밑바탕에 도시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관찬(官撰)의 전국 지리지는 ‘조선’이라는 중앙집권국가에서 편찬한 일종의 자료집으로, 현재 도시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읍지(邑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국방상의 이유로 자료의 열람이 제한되었던 조선전기와 달리, 조선후기에는 중앙에서 파악된 지역정보가 민간에까지 흘러들어가 『대동여지도』라는 성과물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한편 조선시대 도시연구의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정상기·신경준·김정호 등의 계보를 잇는 조선전도와 상호 관련성 있는 자료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이러한 특징은 문헌 간의 유기적인 관계성과 정보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으로²⁾, 기존 사료에 대한 이해와 의미해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330여개 개별 자료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술하였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조선시대 지리지는 ‘통치’를 위한 기록이므로, 현대적 의미의 지리서로만 인식하는 것은 편중된 선입견이다. 통치를 위해 전국적으로 수집한 군현자료는 도시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편집물로서, 도시연구를 위한 입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지도와 지리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의 건축과 경관 분석을 위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발굴해 보았다. 이는 문헌의 작성 혹은 제작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사료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는 관찬(官撰)의 『輿地圖書』, 사찬(私撰)의 『東國輿地志』·『輿圖備志』·『大東地志』 등 전국 지리지를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이들 전국 지리지는 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통일된 체제로 정리되어 있다. 이에 반영된 논리체계는 조선시대 도시의 개념적인 이해와 더불어, 도시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범례·목록·항목

등 서지학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의 기초가 되는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고, 문헌에 내포된 의미를 유추하였다. 특히 『輿圖備志』와 『大東地志』는 『大東輿地圖』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된 것이다.

2. 조선시대 도시에 관한 주요 논의

조선시대 도시연구에서 중요한 분석의 틀은 풍수와 『周禮』 『考工記』에 있다. 읍치의 풍수적인 입지형태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고, 『주례』 『고공기』는 동양 도시계획의 기본원리로 이해되었다. 한양의 천도과정은 조선시대 도시를 이해하는 모범이었고³⁾, 지방도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례가 되었다.⁴⁾

그러나 최근 고착된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주요 논점은 도시풍수의 역사성 부재⁶⁾와 평면적 유형분류에 대한 비판⁷⁾이다. 이에 대해 도시풍수의 확산⁸⁾을 조

3)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1~43쪽; 『(개정)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쪽, 179~186쪽.

4)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구, 「朝鮮中期 邑城에 關한 研究: 輿地圖書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철수, 「한국 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장명수, 「朝鮮時代 都市計劃 特徵에 關한 研究: 全州 城郭都市를 中心으로」, 『국토계획』 28(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3.8; 김기덕, 「조선시대 지방 읍치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5), 대한건축학회, 2003.5; 예명해, 「朝鮮時代 地方都市의 空間構成原理에 關한 研究」, 『국토계획』 33(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8.12; 예명해·신상화, 「조선시대 춘천의 도시 입지해석과 도시구조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 14(3),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3; 이재환·예명해, 「朝鮮時代 軍威邑治 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대한건축학회, 2004.12; 김선범, 「성곽의 도시원형적 해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 한국도시지리학회, 1999; 정명섭 외, 「조선후기 상주읍치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7(1),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2.

5) 이기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2008.

6) 여기서 이기봉이 말하는 ‘풍수’란 배산임수에 한정된 의미의 풍수를 말하는 것이다. 요지는 산성이나 구릉지대에 위치했던 치소가 고려말~조선초에 평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는 각주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형성과 관련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의미와 별개로 그렇다면 ‘산성’의 입지는 풍수가 아닌가라는 논리적 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관념적 성향이 강한 풍수가 현대적인 것대로 논증될 수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 『주례』 『고공기』는 개념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조선시대 도시계획원리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책에서는 입체성과 가시성이 무시된 평면적인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례』 『고공기』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다. 이기봉의 견해는 『주례』 『고공기』를 경관차원에서 검토하여 그 동안 도시연구의 발목을 잡아오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었고, 고답적인 생각에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8) 이러한 논의는 결국 도시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기존 관념에 대한 반박은 역사적 고찰을 통해 검증되기도 하였다. 심정보, 「高麗末·朝鮮初의 下三道 邑城 築造記事 檢討」, 『석당논총』

1) ‘都市’라는 용어는 마땅한 대체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전통도시의 성격을 정의하기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

2) 본고 3.3 본문, <Fig3 <자료간의 관계>> 참조.

선시대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고⁹⁾, 평면에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도시건축에 관한 연구는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관아와 유교시설물에 대한 고찰이 함께 수행되기 마련이다. 관아건축물은 유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¹⁰⁾

3. 조선시대 지도와 지리지의 사료적 가치

최근 고문서 DB작업과 더불어 문헌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서지학적인 연구 또한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역사·지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지도와 지리지의 발달은 다음과 같이 세 갈래의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전국 지리지 편찬과 그 영향, 둘째 사찬 읍지의 발달과 성격의 변화(私撰→官撰), 셋째 조선후기 국가의 정보력과 역사지리학의 체계화로 발달한 사찬의 지도와 지리지 등이다. 이러한 흐름은 <Fig.1>¹¹⁾과 같

제2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4; 심정보, 「朝鮮時代 湖西地方沿海邑城의 機能에 대한 考察」, 『호서문화연구』 제14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6; 최중석, 「한국의 「전통적」 邑治 景觀의 창출에 관한 試論」, 『역사교육』 112, 역사교육연구회, 2009.12; 최중석, 「조선시기 鎭山의 특징과 그 의미: 읍치공간 구조의 전환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사학보』 45, 조선시대사학회, 2008; 최중석, 「조선초기 「邑城」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9) 다음은 그 근거 사례가 될 수 있다. 최원석,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풍수적 입지분석과 경관유형」, 『대한지리학회지』 42(4), 대한지리학회, 2007.9; 이기봉, 「낙안읍성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경관: 읍지에 구현된 조선적 권위 상징의 전형을 찾아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2008.2; 이기봉·홍금수,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고려말 이후 입지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6; 김덕현, 「경상도 균현의 형성과 변화 과정」, 『문화역사지리』 17(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5.

10)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남철,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1), 대한건축학회, 1984.2;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의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순일·조형래, 「朝鮮時代 東萊府의 官衙建築에 관한 研究」, 『향도부산』 13, 부산광역시, 1996; 김기덕, 「朝鮮後期 忠淸道 官衙建築의 配置體系」,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사』, 기문당, 2003, 474~485쪽; 여상진, 「조선시대 객사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서치상·지성진·조형래, 「東萊府東軒일곽의 복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9(2), 2007; 이정태·천득염, 「나주목 관아의 복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김기덕, 「조선후기 남한산성 관아건축의 변천」, 『건축역사연구』 20(6),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12.

11) <Fig.1>은 도시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줄기를 이루는 큰 흐름은 조선전기 전국 지리지를 시작으로 한다. 『東國輿地勝覽』은 이후 편찬된 지리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조선후기 사찬의 조선전도는 굵은 화살표 좌측 국가의 지리정보 축척과 굵은 화살표 우측 역사지리학의 영향으로 발달

이 종합 정리될 수 있다.

도시연구의 자료로 활용되는 고지도는 지리지를 기초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리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고지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유용하다. 본고에서는 도시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문헌에 대한 파악과 이해·활용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3-1. 전국 지리지의 편찬시기별 특징

조선시대 전국 지리지의 편찬은 국내외적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던 세종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된다.¹²⁾ 이 시기 지리지는 건국초기 재정과 국방이라는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¹³⁾, 조선 초기 행정제도·자연환경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사료이다. 조선전기 지리지의 편찬은 세종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시도되지만¹⁴⁾, 『동국여지승람』(1486년, 성종17)의 편찬으로 일단락된다.¹⁵⁾ 성종대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두 차례 더 수정되었는데, 현재 완결로 전하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25년, 1530)뿐이다.¹⁶⁾

『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의 연장선상에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 李賢, 1461)』 체제에 따라 작성된 자료로서, 『방여승람(方輿勝覽, 祝穆, 南宋)』의 영향을 받아 시문이 수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왕권안정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은 성리학적인 교화에 목적을 두고 정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와

한 것이다. 지도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Fig.3>을 통해 보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병행하여 참고하고, 참고문헌의 위치는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양보경,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조선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6.;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서인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해안, 2002.

12) 서인원, 같은 책, 42, 44~57쪽. 세종조에 작성된 지리지는 현재 『慶尙道地理志』(세종7년)와 『新撰八道地理志』(세종14년)가 남아있는데, 세종 사후 『신찬팔도지리지』를 모본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실록에 실은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이다.

13) 서인원, 같은 책, 34~37쪽 참조.

14) 서인원, 같은 책, 90~92쪽. 단종·세조·예종조에 『續撰八道地理志』의 편찬이 시도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성종8년(1477)에 완성을 본다. 『續撰八道地理志』는 『東國輿地勝覽』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15) 서인원, 같은 책, 121~129쪽.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12)에 완성되었으나 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1486년(성종17) 수정을 거쳐 간인된다.

16) 서인원, 같은 책, 23쪽.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종 이전의 『동국여지승람』은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본고에서 언급하는 『동국여지승람』은 신증을 의미한다.

17) 서인원, 같은 책, 2002, 12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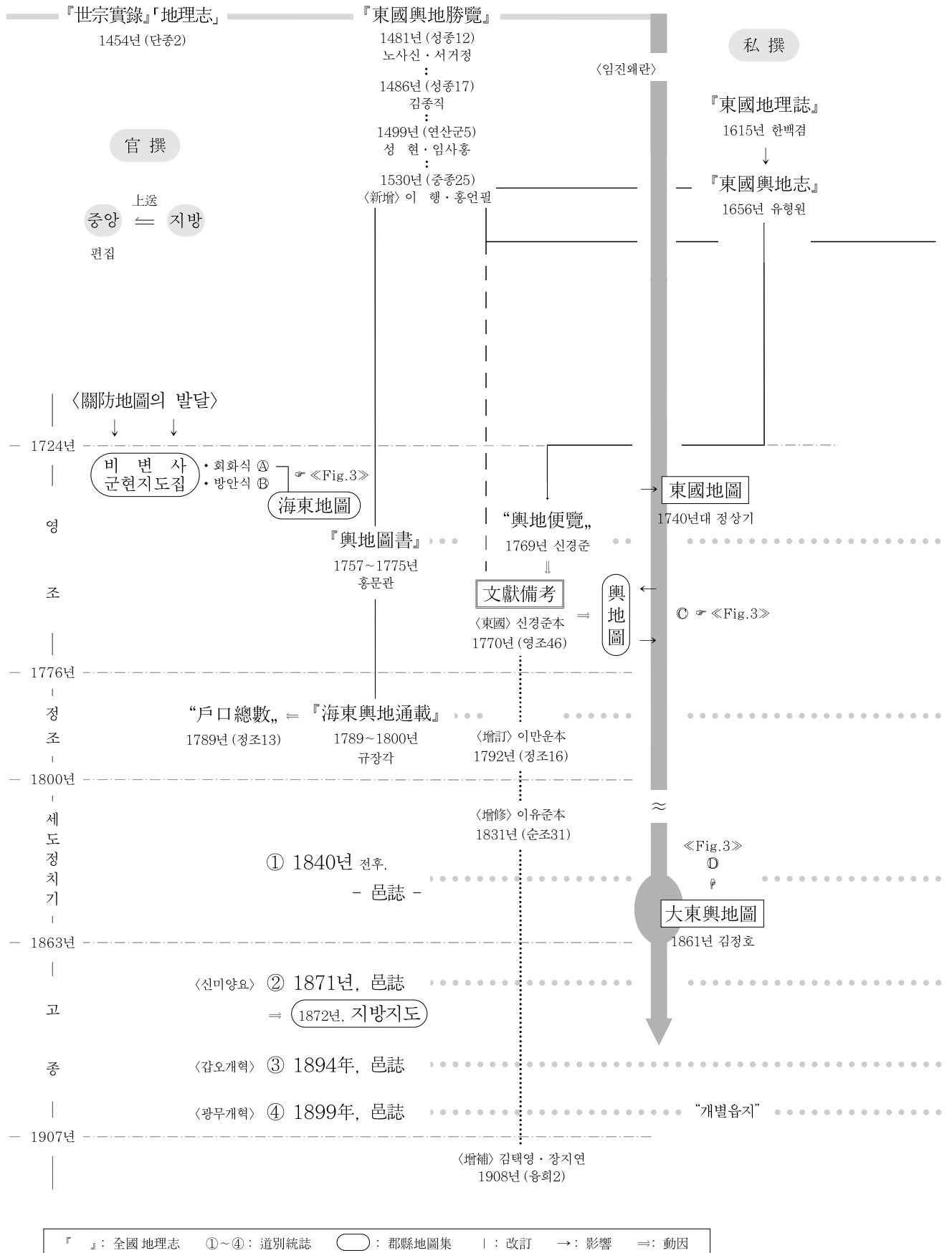


Fig.1 Maps and geography books in Joseo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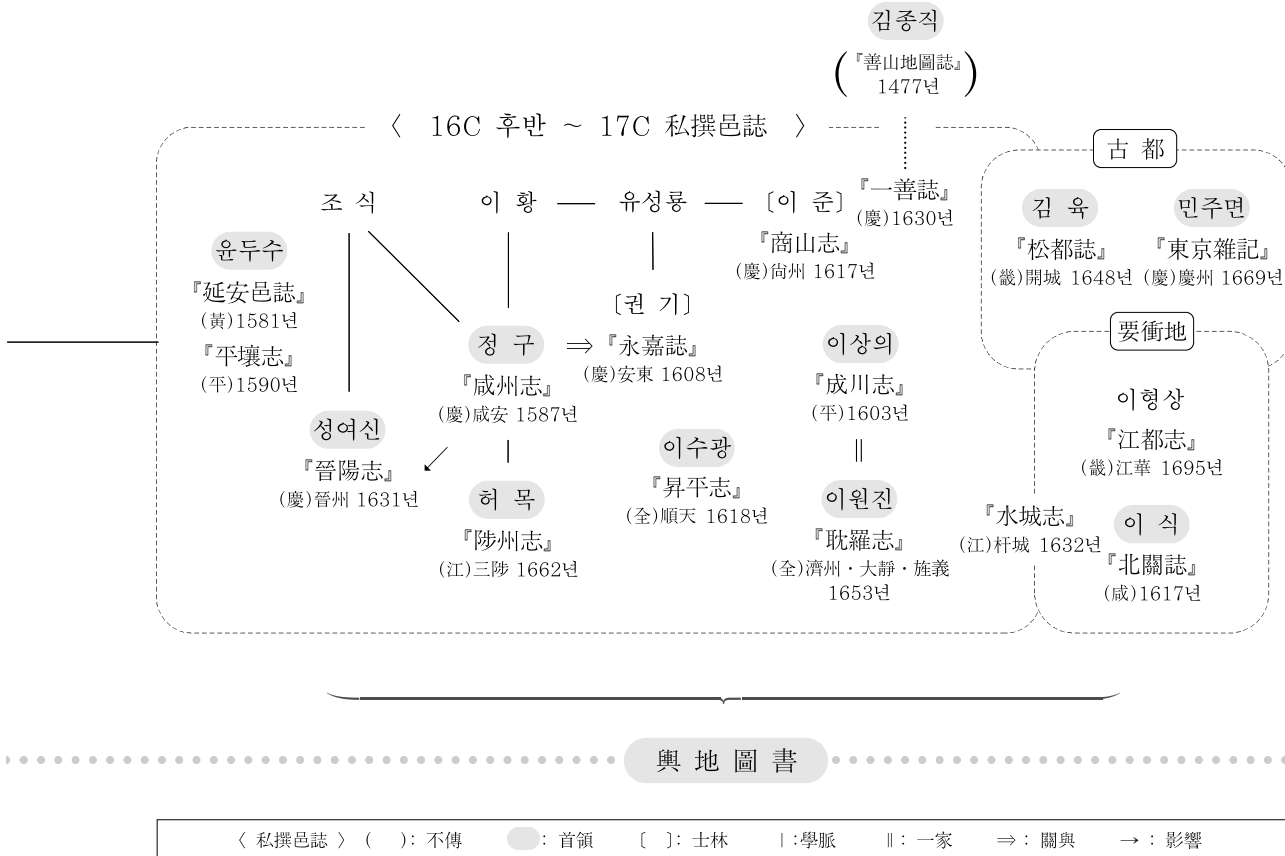


Fig.2 Provincial geography books in the late 16th C and 17th C

관련 있는 건축 항목이 비교적 상세해지고, 공공건축에는 상량문이나 기문이 함께 기록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시기는 관청 없이 민가가 수령의 업무처로 사용되었다는 사례도 있어서¹⁸⁾, 해당내용이 단순히 누락된 것인지 기록이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¹⁹⁾

조선후기 지리지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동국여지승람』을 개정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숙종대²⁰⁾ 시작되어 영·정조대로 이어지는 개정사업은 기본적으로 변화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리지 편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²¹⁾ 특히 영조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지리지 편찬사업(1757~1775년)은, 16세기 이후 지방에서 개별·분산적으로 편찬되던 읍지

18) 김현규,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지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2), 2007.4, 121쪽 참조.

19) 해당내용은 대개 [宮室]에 실려 있다. 건축물의 명칭과 함께 관련 기록이 서술되어 있는데, 기재할 시문이 없어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 유형원, 『全國地理志③ 東國輿地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쪽 참조. 「修正東國輿地志凡例」 一. 宮室客館之類勝覽或載或否蓋有詩文者載之無詩文處并與宮室而不載矣今每邑載之

20) 배우성, 같은 책, 129~130쪽 참조. 숙종대 지리지 편찬은 지방사족의 반발을 우려하여 뚜렷한 지침 없이 발의되었다가 완성을 보지 못한다. 이때의 기록은 개별읍지 형식으로 일부 전한다.

21) 배우성, 같은 책, 125~160쪽

를 국가가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²²⁾

현전하는 『여지도서』는 1760년(영조36) 취합된 것으로, 그 성과물 중 일부분이다. 지방에서 상송된 읍지를 그대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군현마다 체제는 동일하나 내용 서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후에 추가된 보유(補遺) 전라도편에는 소재 군현 말미에 鎮事例와 驛誌²³⁾가 첨부된 경우가 있어 다양한 건축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정조의 『해동여지통제』는 제도개혁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대전통편』의 체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²⁴⁾ 이 책은 현전하지 않으나 편찬과정에서 『호구총수』를 남겼는데, 인구번성은 곧 성군정치를 의미하는 지표자료로 일종의 정치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다.²⁵⁾

22) 양보경, 같은 논문, 101쪽.

23) 전주 「威鳳鎮事例」·「南固鎮事例」·「參禮道驛誌序」, 남원 「檉樹驛誌序」, 금산 「濟原驛誌」, 만경 「古群山鎮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만경 「古群山鎮誌」는 [四境]·[形勝]·[烽燧]·[公廩]·[倉庫]·[島嶼] 등으로, 금산 「濟原驛誌」는 [官職]·[公廩]·[寺刹]·[主山]·[社倉] 등으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24) 배우성, 같은 책, 145~147, 156쪽 참조.

25) 배우성, 같은 책, 157~158쪽.

3-2. 邑誌 현황: 건축사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지리지가 국가통치를 위한 참고자료였다면 읍지는 지방통치를 위한 기록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 사료로서의 가치²⁶⁾ 또한 크다. 특히 읍지는 정치·사회적인 변동기에 집중적으로 편찬되는 경향이 있는데²⁷⁾, 이러한 변화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기록은 읍지 편찬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²⁸⁾

읍지는 15세기 수령이 향리와 토호세력으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고 부역을 균등히 하려는 목적에서 찬술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간략한 형태나마 조선초기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²⁹⁾ 공공건축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세기 후반~17세기 작성된 ‘사찬읍지(私撰邑誌)’에서 찾을 수 있다. 각 군현에서도 『동국여지승람』을 대체할 기록이 필요해지면서, 수령과 사족을 중심으로 지방의 변화와 상세한 실정을 반영한 기록이 작성된 것이다.³⁰⁾ 조선후기 읍지의 기본체제는 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³¹⁾, 조선 전·후기 도시건축사의 흐름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사찬읍지(私撰邑誌)는 <Fig.2>³²⁾와 같이 수령 개인의 관심에 따라 그 부임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가계나 학맥을 통해 계승되기도 하였다. 지역별

26) 도시사·건축사 연구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읍지는 시대별, 지역별, 편찬자별로 건축내용에 편차가 심하다. 일개 군현의 읍지는 통상 사찬·관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였다. 어느 시점에서 체제가 굳어지면, 이후에는 이를 저본으로 변경·수정된 내용을 첨삭하여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지도서』보다 후대 편찬된 읍지의 건축내용이 더 소략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대별 판본의 비교는 연구의 기본이다. 본고에서는 읍지의 편찬배경을 통해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미미하나마 건축사료로서 가치를 지니는 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27) 양보경, 같은 논문, 1987, 80~81쪽 참조.
 28) 본고 <Tab.2>의 주요 도시 참조. 이러한 이유로 치소 건축에 대한 서술은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격차가 심하고, 같은 군현의 읍지도 편찬시기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다.
 29) 『邑誌』, 경상도편 해제, 4쪽 참조. 『善山地圖誌』(1477년, 김중직)
 30) 『邑誌』, 『朝鮮時代私撰邑誌』 각 도별 해제 참조.
 31) 양보경, 같은 논문, 66쪽 참조.

32) <Fig.2>는 현전하는 16~17세기 사찬읍지를 중심으로 문헌의 성격을 개념화시킨 것이다. 이는 다음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양보경, 「朝鮮時代 邑誌의 성격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66~77쪽; 『邑誌』; 『朝鮮時代私撰邑誌』. 사찬읍지의 성격은 조선 전·후기 사이에 중기라는 시대 설정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시대는 제1기(15세기)를 국역체제가 확립되는 시기, 제2기(16·17세기)를 양반지배체제의 안정기(사족지배체제), 제3기(18세기 이후)를 양반지배체제의 동요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85~87쪽 참조.) 지방에서 편찬된 사찬읍지는 편찬 시기별 지방 지배구조의 특성에 따라 문헌의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로는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등의 학맥이 형성된 경상도 지역,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도(古都), 국방상으로 중요한 요충지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사찬읍지의 기본체제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³³⁾, 건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항목 구분 없이 서술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례는 공공건축에 대한 배치·연혁·역사적 의미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후대 읍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Tab.1 Case of building-related information
 : 『Kyodong-bu-eupji(喬桐府邑誌)』 (奎12182, 1894)

城池	烽燧	公廩	
華蓋山城	華蓋山烽燧	近民堂	衙典廳
邑城	水晶山烽燧	應酬堂	巡牢廳
倉庫	鎭堡	百和堂	官奴廳
司倉	- description -	司篆齋	樓亭
軍需庫	學校	官廳	晏海樓
軍糧庫	- description -	內舍	三門樓
軍器庫	壇廟	貳師營	秋梧軒
兵庫	社壇	運四軒	八角亭
勅庫	厲壇	掾史堂	海山亭
戶庫	蠱神閣	教鍊官廳	息波亭
禮庫	冷井壇	別軍官廳	庚亮樓
魚物庫	鎭望壇	旗牌官廳	統三樓
布米庫	華蓋壇	守城廳	拱北樓
工庫	栗頭壇	討捕廳	老龍巖
六一庫	水晶壇	府獄	華蓋書齋
松倉	上主壇	關武堂	佛宇
保民庫	馬載壇	訓練廳	葛公寺
火藥庫	宮室	捕盜官廳	安養寺
六物庫	客舍	營史廳	華陽寺
檣庫	潛邸所	鎭撫廳	華蓋庵

※ Details omitted

읍지는 전국 지리지가 편찬되는 과정에서 작성되기도 하였다.³⁴⁾ 중앙에서 내려온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된 관찬읍지(官撰邑誌)³⁵⁾는 기존 읍지의 항목구성이나 체제형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읍지 첫머리에 지도가 수록되기 시작한 것도 『여지도서』 이후에 갖춰진 형식이다.³⁶⁾ 관찬읍지는 19세기 말 대외적 국방강화와 대내적 개혁추진에 따라 다시 집중적으로 편찬된다.³⁷⁾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은 후 수집된 1871년의 읍지는 군사적인 내용이 강조되면서, 사례대개(事例大概)와 영지(營誌)·역지(驛誌)³⁸⁾·진지(鎭

33) 서인원, 같은 책, 289쪽 참조; 『邑誌』, 『朝鮮時代私撰邑誌』 각 도별 해제 참조.
 34) 『邑誌』, 『朝鮮時代私撰邑誌』 각 도별 해제 참조.
 35) 배우성, 같은 책, 137쪽 참조.
 36) 양보경, 같은 논문, 104~105쪽.
 37) 배우성, 『지리학의 발달과 지리, 지도의 편찬』, 『한국실학사상연구』 1, 해안, 2005, 544쪽 참조.

誌) 등이 함께 첨부되기도 하였다.³⁸⁾ 이때 함께 수록된 지도는 내용이 너무 소략하여 읍지편찬이 완료된 후, 1872년 대원군의 명에 따라 지방지도가 추가로 제작되었다.⁴⁰⁾

이후 갑오(1894년)·광무개혁(1897~1904년)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읍지편찬이 재차 시행된다. 이 때 편찬된 읍지는 영지·역지·진지·목장지 등이 독립적으로 편찬되어 해당기록이 더욱 상세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⁴¹⁾

3-3. 고지도의 성격과 사료적 가치

지도는 지리지의 결과물로서 그 가치는 지리지에 반영된 시대 논리에 따라 독해했을 때 비로소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 고지도를 활용한 연구는 과거 사라진 실물에 대한 확인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단절되어버린 과거의 사고체계를 읽어가는 과정으로써 경관해석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리지와 짝을 이루는 『대동여지도』에 대한 검토는 고지도⁴²⁾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동여지도』 연구의 가장 큰 쟁점은⁴³⁾ <Fig.3 <자료간의 관계>>⁴⁴⁾와 같이 지도학적인 계보 추적에 있다. 지도에 족보가 있다는 것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도가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를 기점으로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변사 회화식 군현지도집(1730년 전후)⁴⁵⁾을 참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청구도』의 저본 또한 신경준(1712~1781)이 제작한 『여지도』⁴⁶⁾로 추정되고 있다. 『여지도』

는 영조대 문화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함께 수록하려던 것을 별도로 간행한 것이다.⁴⁷⁾

『동국문헌비고』는 신경준이 『여지편람(輿地便覽)』을 완성하자, 지리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라는 영조의 명에 따라 편찬된 것이다. 『여지편람』은 『동국문헌비고』 중 『輿地考』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신경준의 『山水考』·『疆域考』·『四沿考』·『道路考』 등 역사지리 저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⁴⁸⁾ 이는 역사적 고증을 학문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킨 한백겸(1552~1615)과, 그 뒤를 이어 역사지리학을 제도개혁사상으로 승화시킨 유형원(1622~1673)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신경준 이후 발전한 역사지리학은 김정호를 통해 집대성되었고, 산수·도로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지도제작에 그대로 반영된다.⁴⁹⁾

한편 계보에 관한 논의는 곧 실측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 실측이란 각종 지리지에서 제공된 위치정보를 말하고, 위치정보는 시간개념이 포함된 전통방식의 측량⁵⁰⁾을 의미한다. 실제 이동거리 즉 경험된 공간은 도로에 10리 간격으로 방점⁵¹⁾을 표시하면서 입체적으로 재현되었고, 당시 일반화된 풍수논리는 목판으로 제작되면서 산도(山圖)⁵²⁾의 표현방식⁵³⁾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의 사유체계를 공유하는 고지도와의 상관성을 고려해볼 때, 계화(界畵)⁵⁴⁾의 경관해석으로 심화될 수 있다. 계화는 전통적으로 건축물을 표현하던 그림방식이다. 계화에 내포된 의미는 그러나 건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계화의 관조방식은 산수화와 일맥상통하여⁵⁵⁾,

38) 驛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종현, 「韓國交通建築의 變遷과 發達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조병로, 『韓國近世 驛制史研究』, 세미, 2005.

39) 양보경, 같은 논문, 114~115쪽.

40) 배우성, 같은 책, 545쪽.

41) 양보경, 같은 논문, 116~118쪽 참조.

42) 본고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정점에 두고,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고지도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대동여지도』가 조선후기 지리정보의 축적 혹은 집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택한 서술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관의 표현방식은 당시의 사유체계를 공유하므로 군현지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고에서 '고지도'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3) 배우성, 「『대동여지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사학회지』, 28(1), 2006. 이전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다.

44) <Fig.3 <자료간의 관계>>는 <Fig.1>에 대한 보충이다. 이는 다음 문헌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이기봉, 『조선의 지도 천재들』, 새문사, 2011. 최근 고지도 연구성과가 종합 정리되어 있다.

45) 이 지도집은 『海東地圖』의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海東地圖』계통의 지도로는 『輿地圖』·『廣輿圖』(이하, 규장각 소장) 등이 있다.

46) 이 지도는 20리 방안으로 제작되었고, 원본은 현전 여부가 분명치 않다. 다만 현전하는 규장각 소장 『朝鮮地圖』(奎16030)와 『八道

郡縣地圖』(古4709-11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海東輿地圖』와 『八道地圖』 등이 신경준의 지도로 추정되고 있다.

47)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192~194쪽 참조.

48) 박인호,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이회, 1996, 142, 150쪽 참조.

49) 정구복,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의 발달」, 『한국실학사상연구』1, 해안, 2005, 351~372쪽 참조.

50) 이기봉, 같은 책, 33~36쪽 참조.

51) 10리 간격으로 찍은 방점은 지도 평면상 직선거리와 실제 이동거리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평지에서는 백리척의 길이를 백리로 보되, 산이 험한 곳이면 120~130리 정도로 이해하라.'(정상기의 『동국지도』 발문, 이기봉, 같은 책, 110쪽 발췌.)

52) 당시 유행하던 풍수적인 명당지도.

53) 윤홍기, 「대동여지도의 지도 족보론적 연구」, 『문화역사지리』 3, 1991.8, 40~42쪽 참조.

54) 吳 憲, 『在投影之外』, 天津大學出版社, 2004, 69쪽 참조. '계화'는 계필(界筆)을 이용하여 곧은 자로 선을 그리는 일종의 화화기법으로, 건축물·수레·배·다리 등 정밀한 묘사나 구체적인 이미지 표현에 사용되었다. '계화'라는 용어는 건축그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건축은 주변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지도 연구는 도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도시정보를 중심으로 한 이해와 편집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국 지리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더불어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東國輿地志(1656년)』는 「事要總目」에 항목의 작성원칙을 제시하고, 「凡例」를 통해 분류 근거를 설명해놓았다. 서술방식은 『東國輿地勝覽』과 『大明一統志』를 비교하여 『東國輿地志』에 적용된 내용을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3종 도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輿地圖書(1760년)』는 첫째 도시연구를 위한 내용이 상세하다는 점, 둘째 흐름상 과도기에 위치하면서 사찬-관찬읍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셋째 말미 ‘보유편’이 읍지의 다양성 확보에 일정정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1000여종에 이르는 읍지의 표본으로 연구될 수 있다.

『輿圖備志(1853~6년?)』와 『大東地志(1866년 이후)』⁵⁵⁾는 『대동여지도』 제작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동여지도』의 사료적 가치는 지도에 담긴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동여지도』의 내용이 당대의 사회와 문화가 응축된 성과물이라면, 제작과정은 전문가의 오랜 편집과정이 반영된 자료이해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4-1. 목록구성

경도(京都)를 한성부와 별도로 분리하여 서두를 연 것은 『동국여지승람』 이후 지속된 체제형식의 하나였다. 또한 개성을 한성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앞쪽에 실어 차별화시킨 것은 조선전기 지리지의 특징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작성된 『여도비지』·『대동지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목록(군현의 기재순서) 비교를 통해 조선 전·후기 군사제도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수원·광주·개성·강화⁵⁷⁾와 교동·과주⁵⁸⁾ 등을 순서대로 경기도 가장

55) 심 팔著·최병규譯, 『몽계필담(상)』, 범우사, 2002. 294~295쪽 참조. 吳 愨, 같은 책, 197쪽 참조. 계화 중에 흔히 ‘평행투시도법’이라 부르는 기법은 서양화법과는 무관하다. 평행투시도법은 건물의 정면과 측면을 제한한 것으로, 목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측면 경사도를 통해 넓게 펼쳐진 건물배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여러 각도의 시각에서 산수를 관찰하여 형세를 파악하는 산수화법과 개념상 같은 것이다.

56) 『여도비지』는 京都 중 西班府署, 忠清道 개요, 忠清左道, 慶尙右道 일부, 江原西道, 咸鏡北道 등이 결본이다. 『대동지지』 平安北道 후반부는 미완으로, 대동지지의 다른 부분과 체제가 다르고 시대변화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57) 해당 군현은 조선후기 유수가 파견된 四都로서, 치소에 각각 總理

앞쪽에 실어, 배도(陪都)의 위계와 군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동지지』만의 특징이다.⁵⁹⁾

조선초기 『세종실록』 「지리지」부터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이르기까지 전국 군현의 기재순서는 모두 진관(鎭管)⁶⁰⁾에 따른 것이다. 진관제도는 일종의 방어진략으로, 전국 지리지의 골격을 구성하는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리지에는 각 도별 군현을 左右道·東西道·南北道 등으로 나누고, 주진(主鎭: 감영처 해당) 혹은 거진(巨鎭)과 그 소속 제진(諸鎭)을 묶어 읍격(邑格)에 따라 배열하였다. 이 중 『대동지지』는 감영 소재의 주진과 소속 제진을 각 도 맨 처음에 두어, 진관에 따른 군현 간의 위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였다.⁶¹⁾ 이러한 체제는 부대배치에 따른 군대이동을 골자로 하는데⁶²⁾, 군현 간 경계를 잇는 도로의 성격과 발달, 군현 내 도로 연결망 등 공간해석에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여지도서』의 군현목록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강화부·교동도호부·영종방영을 강도부(江

營·守禦營·管理營·鎭撫營이 설치되었다. (《Tab.2》 경기도 참조)

58) 『대동지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교동과 과주는 각각 統禦營·防營의 소재처이고 진관에 속하지 않는다.

59) 조선 전·후기 전국 지리지의 목록편성 차이는 유수부에 대한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즉 조선전기 개성이 舊都로서 의미가 한정된 데 반하여, 조선후기에 개성을 비롯한 수원·광주·강화 등 4都 유수체제는 배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이준희,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研究』, 일지사, 1990, 290~298쪽 참조). 자세한 사항은 《Tab.2》 京畿도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선후기 설치된 군영은 유수부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60) 『동양학대사전』(임종욱, 경인문화사, 2006)에는 ‘鎭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군사조직인 主鎭·巨鎭·諸鎭의 체제를 일컫는 말. (중략) 兵馬節度使나 水軍節度使가 관할하는 주진 아래에 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몇 개의 거진을 두고, 그 밑에 節制都尉·萬戶 등이 관할하는 여러 진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 체제를 이루었다.” 이는 역사학계 일반론으로 판단되나, 도시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법해석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위 해설은 조직의 ‘상·하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조선 전·후기 진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동국여지승람(1530년)』		『대동지지(1866년 이후)』	
右道	楊州鎭	坡州 高陽 永平 抱川 積城 交河 加平	楊州鎭 高陽 交河 加平 永平 抱川 積城
	長湍鎭	江華 豐德 朔寧 麻田 漣川 喬桐	長湍鎭 朔寧 麻田 漣川
左道	廣州鎭	驪州 利川 楊根 砥平 陰竹 陽智 竹山 果川	驪州鎭 竹山 利川 楊根 砥平 陰竹 陽智
	水原鎭	富平 南陽 仁川 安山 安城 振威 陽川 龍仁 金浦 衿川 陽城 通津	仁川 通津 富平 安山 安城 金浦 振威 龍仁 陽川 果川 陽城 始興

61) 다만 경상도의 경우는 경주가 가장 앞쪽에 위치한다. 옛 감영처이자 고도(古都)로, 군사상 중요한 도시로서의 위상이 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제도에서 巨鎭의 수령은 절제사(節制使, 정2품)나 첨절제사(僉節制使, 종3품)로 임명된다. 『대동지지』를 기준으로 절제사가 파견된 곳은 경주·제주·의주 단 3곳뿐인데, 군사상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62)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소, 『韓國軍制史』 2, 1968, 35~40쪽 참조.

Tab.2 Outline of 『Daedongjiji(大東地志, 19C)』's each do(道: the provinces of Joseon Dynasty)

京畿道	忠淸道	慶尙道	全羅道	江原道	黃海道	咸鏡道	平安道	Notes
巡營(漢城)	" [公州]	" [大邱]	" [全州]	①" [原州]	" [海州]	" [咸興]	" [平壤]	兵馬水軍節度使
總理營[水原] 守禦營[廣州] 管理營[開城] 鎮撫營[江華]	-	-	-	-	-	-	-	四都(京官職)
-	兵營(淸州)	左兵營(蔚山) 右兵營(晉州)	兵營(康津)	-	兵營(黃州)	南兵營(北青)	兵營(安州)	兵馬節度使
統禦營(喬桐)	水營(保寧)	左水營(東萊) 統制營(固城)	左水營(順天) 右水營(海南)	-	水營(甕津)	北兵營(鏡城)	-	水軍節度使
兵馬防營[坡州] 水軍防營[永宗鎮]	-	-	防禦營(濟州)	⑥防營(鐵原)	-	防禦營(吉州)	防營[義州] [昌城][江界] [宣川][三和]	防禦使
-	-	-	-	④兵馬⑤水軍	-	-	-	.
討捕營	"	"	"	-	"	"	"	.
鎮管別	"	"	"	②"	"	"	"	.
-	-	-	-	③驛道⑦防守	-	-	-	.

1. [] : case that placed in Eup-government(邑治), () : case that separated from Eup-government(邑治) 2. " : same as left
3. 慶尙道 統制營: 三道水軍統制使 兼 右道水軍節度使 4. ①~⑦: order listed. 5. 咸鏡道 南·北道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兼

都府)로 묶어 경기도와 별도로 가장 앞쪽에 실은 것은, 영조대 국가정책의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각 도(道) 첫머리는 감영·병영·수영 등의 건축물과 재정상황을 서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함께 수록된 감영지도는 관할도(道) 영역을 그린 것인데 반하여, 병영·수영은 성내 건축배치도를 첨부하여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감영은 감영 소재 군현과 별개로 서술된 이유도 있지만, 군현 서술에 앞서 주요 내용을 개관하는 역할도 한다.

『대동지지』에는 《Tab.2》⁶³⁾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 도 개요 끝자락에 영아의 위치와 진관별 소속 제진을 기록하여⁶⁴⁾, 도시발전의 동인(動因)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군현의 기재 순서와도 일치한다. 읍치와 별도로 설치된 군영은 소재 군현의 수령보다 높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영장(營將)이 관할하여 또 다른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더 나아가 영아가 읍치 내에 위치하는지, 별도로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또 다른 공간해석이 필요한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것은 19세기 군사제도에 반영된 정책 사안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으로, 국토의 개발과 운영사례⁶⁵⁾를 보여

63) 『대동지지』를 통해 營衛의 위치변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영의 위치는 왜란이후 경상도, 호란이후 충청 병영·평안 병영이 변동되었다. 황해도와 경우는 조선후기 신설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각주57~59)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충청·경상 감영의 위치는 왜란직후 이동하여, 전란기 군사제도의 변화가 감영의 입지선정과 관련이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64) 서술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여도비지』의 편집방향도 이와 같다.

65) 국토의 개발과 운영이란 다시 말하면 시설물의 형성과 주변 취락의 발달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邑事例'를 비롯한 '營事例'·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영종도진(永宗浦鎭)·덕적도진(德積島鎭), 전라도 법성포진(法聖浦鎭) 등은 소재 군현과 별도 정리하여, 각 지역이 주요 전략지점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도 목록에는 대전(大典)에 명시된 영아·진보·조창(漕倉)·역·목장 외에도, 주요 산성이 기재되어 있어서⁶⁶⁾ 조선시대 건축사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다.

4-2. 내용과 서술

《Tab.3》과 같이 『여지도서』 각 군현의 서술은 소속 진관과 함께, 지역과약을 위한 [坊里]와 [道路]를 개관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고 있다. 본론은 일반적인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간략한 역사([建置沿革]·[郡名]) 서술로 시작된다. 바로 뒤 [形勝]과 [城池]·[官職]이 함께 서술된 것은 [形勝]이 자연환경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파악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山水]·[姓

‘鎭事例’ 등 사례중심의 地理志類를 통해 참작해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후기 읍사례의 계통과 활용」(김태웅,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1999)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재구성한 것이다. “사례는 지방관아의 실무 시행 지침에 해당되는 일종의 規例 혹은 지방법규로서, 전례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25, 26, 29쪽). 읍사례는 삼국통일 전쟁기에 군현제가 실시되면서 절목,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그 단초를 보이다가 조선후기에 들어와 군현의 규례를 취합한 책자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33쪽). 군현 특유의 행정조직과 各所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면리의 현황 面主人의 기능 및 내역, 군현의 행정규식 및 각종 의례 등이 기재되어 있다(40쪽). 내용이 상세한 경우에는 面里 단위까지 읍세를 기록하고 있어, 촌락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43쪽).”

66) 『여도비지』의 각 도 목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도비지』에는 각 군현 서두에도 제차 기록되어 있다.

氏]·[風俗]은 지역 개관에 대한 보충이자, 인문지리적 환경을 제시한 항목이다. [陵寢]부터 [公廡]까지 건축 관련 항목은 『동국여지승람』보다 분류가 세분화되고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편집되어있다. 이후 경제·교통·통신·경관·인물과 관련된 항목에 이어, 재정·군사의 운영사례가 따라 붙는다.

Tab.3 Compare of national geography books

Donggukyeojiseungram 東國輿地勝覽 (中宗25, 1530)	Yeojidoseo 輿地圖書 (英祖36, 1760)
各邑: *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關防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橋梁 佛宇 祠廟 陵墓 古蹟 名宦 人物 萬居 孝子 烈女 題詠 辯誤	各邑 所屬鎮管: *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陵寢 宮室 學校 壇廟 冢墓 公廡 堤堰 倉庫 物產 橋梁 驛院 牧場 關隘 烽燧 樓亭 寺刹 古蹟 名宦 人物 題詠
-	旱田 水田 進貢 糶糶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1. *: distance to boundary from all direction (Unit: 里)
2. Order of items are arranged as which recorded in the list.

통상 지리지의 첫머리에 오는 [沿革]은 행정구역의 변화를 서술한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군현제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⁶⁷⁾ [沿革]은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를 위한 군현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편찬되기 시작한 자료이다⁶⁸⁾. 이것은 곧 도시의 기원과 관련된 기록이다. [沿革]에는 의례 <官員>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조선시대 군현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령의 관직은 법전에 명시된 사항으로 읍격(邑格)을 의미하지만, 도시의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形勝]과 [山川]이 있다. [形勝]은 『동국여지승람』 이후 역사경관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지도서』는 실용성에 목적을 둔 때문인지 주변과의 관계, 지역성, 도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되기도 하였다. [形勝]에 앞서 서술된 [郡名]은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목의 연속성을 지닌다. [山川]에는 기본적으로 지명과 거리정보가 수록되어있는데, 통상 진산(鎭山)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하여 산의 위계에 따라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산은 산줄기의 흐름, 역사 관련 서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리지에 파악된 산줄기는 역사성뿐만 아니라, 봉수와 같이 기능적 성격을 지닌

시설물과도 관련이 있다. [烽燧]에는 봉수의 위치와 송·수신 연결망이 기술되어 있다. 봉수는 지형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었다는 점에서 역사가 투영된 지형지물, 곧 만들어진 풍수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아건축물은 [宮室]과 [公廡]⁶⁹⁾ 항목에서 상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宮室]에는 개성과 같이 敬德宮·穆淸殿⁷⁰⁾ 등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이 기록된 경우도 있으나, 경상도 지역은 客館이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公廡]는 건물 명칭만 간략하게 나열되기도 하지만, 규모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많다. 좀 더 자세한 경우에는 건물의 좌향·편액·용도·연혁·배치·부속건물·존폐 여부 등이 서술되기도 하였다. 드물게 건물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건물의 용도나 배치에 관한 서술이 없더라도, 객사나 아사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건물을 기록한 경우도 있다.

관아건물 중 부속시설은 [倉庫]나 [樓亭]에 기록된 경우도 있다. [倉庫]는 [堤堰]·[物產]과 함께 경제관련 항목으로 분류되었지만, 관청에 부속된 창고를 [倉庫]조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樓亭]은 [寺刹]·[古蹟]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樓亭]에 기록된 내용은 성문·관아·역참·진도(津渡) 등 공공성을 띤 경우가 대부분인데⁷¹⁾, 장소성과 경관이 어우러져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있다.

[城池]에 이어 배치된 [官職]은 앞으로 서술될 공공건축물간의 조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자, 관아건축의 구성과 배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서술은 주요 관직을 소개하고 소속 관원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아의 인적구성원을 수령부터 노비까지 각각의 인원을 소상히 기록해놓았다. 이것은 여타의 전국 지리지가 [沿革]의 소항목으로 주요 관원만 간략히 기재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한편 수령은 영장(營將)·수성장(守城將)·감독관(監牧官) 등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급 관원이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된다. 이때 동선의 흐름은 치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군현 내부도로의 발달과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4-3. 분류와 편집

유형원은 기존 지리지에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분류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동국여지』

67) 『大東地志 門目』 [沿革] 三韓之初無郡邑之號 (중략) 如是而問有郡縣之併省官號之陞降詳于各邑之沿革

68) 서인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해안, 2002, 37~40쪽 참조.

69) 관아는 [宮室]·[館舍]·[廡宇] 등의 항목에 서술된 경우도 있다.

70) 경덕궁·목청전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사저.

71) [樓亭]에는 그 밖에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 유명인사의 사저나 별장 등이 파악되기도 한다.

는 『대명일통지』의 체제를 참고하면서 여러 문헌의 고증을 거쳐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⁷²⁾ 김정호의 지리지는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도와 지리지를 편집해가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유형원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Tab.4>는 같은 항목일지라도 기재순서에 따라 위계가 다르고, 배열위치에 따라 다르게 독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국여지』는 건축물의 성격에 따른 항목분류가 전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제는 『대명일통지』를 근거로 하였지만, 한국과 중국 간 제도적 현실에 따른 차이를 항목구성의 흐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⁷³⁾ [祠廟]는 [學校]·[宮室]과 더불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지만⁷⁴⁾, 『대명일통지』의 흐름에 따라 기념적 성격을 지닌 건축물로 분류되었다. 『대명일통지』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倉庫]·[郵驛]은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었고, [寺刹]은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로 인식하였다.⁷⁵⁾ 전체 흐름은 법전에 근거한 건축물(i), 국가를 상징하는 공공건축물(ii), 물류·통신·교통 등 외부와 소통을 의미하는 시설물(iii)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公署]⁷⁶⁾는 읍치 외에, 또 다른 유형의 도시를 제시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監營, 兵營·水營, 鎭堡, 驛을 이르는 것으로, 대전(大典)⁷⁷⁾에는 각 도별로 지

72) 유형원, 『全國地理志③ 東國輿地志』,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쪽. 「修正東國輿地志凡例」一. 此書因輿地勝覽增修而其間條例合變通者亦有所釐正云: (중략) 當初執筆之臣多是藁蕪無實之人故條例尚多未盡者至其時流浮辭漫作不于地志者俱收并載使輿地實跡反類雜說是爲遺恨耳今以大明一統志爲式而參取歷代史志及諸書以正之 (후략)

73) 『대명일통지』는 沿革·郡名·形勝·風俗·山川·土產·公署·學校·書院·宮室·關梁·寺觀·祠廟·陵墓·古蹟·名宦·流萬·人物·烈女·仙釋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서인원, 같은 책, 124쪽 표에서 발췌) 『동국여지』에서 [書院]이 본래의 성격을 잃었음에도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書院本爲士子藏修…近世黨繁成風事多虛僞有不合祀…), 『대명일통지』의 [書院]은 [學校]와는 다른 성격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대명일통지』의 [寺觀]이라는 항목은 중국의 사찰이 '누각'이라는 건축형태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있음이 표출된 것이다.

74) 사묘는 祀典에 기재된 것만 기록되었다. 유형원, 같은 책, 10쪽 참조. 「修正東國輿地志凡例」一. 祠廟勝覽祀典正祠外民間濫祀不經之類亦多載之如此者今悉刪正 (후략)

75) 유형원, 같은 책, 10쪽. 「修正東國輿地志凡例」一. 寺刹 (중략) 中寺以上得載小菴堂則有名勝及事蹟者外不載 (중략) 今廢爲遺址者巨刹則移附於古蹟其餘 (후략)

76) 『여지승람』의 [關防] 조를 없애고 『일통지』 체제에 따라 [公署]로 바꾸었다. 『여지승람』의 [關防]에는 병수(兵戍)나 진(鎭)이 설치되지 않은 곳까지 불필요하게 나열해 놓았다는 비판이다. [公署]는 중국 각 위(衛) 각 소재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는 병영·수영 등을 꼽고 있다. 유형원, 같은 책, 9쪽 참조. 「修正東國輿地志凡例」一. 公署勝覽作關防今從一統志改以公署: 勝覽所載或有地係形要時遺兵戍而非設鎭處如此者移載於關梁條 或曰關防之目似不必改中國各衛各所在處有之本國則兵水營兼萬戶 (후략)

방관이 파견된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군현에 소재한 읍치와 달리,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치한 관청으로 읍치를 위주로 서술한 [宮室]과 구분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변화에 따른 시대차이일 뿐, <Tab.2>를 보충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公署]에서 僉節制使鎭과 萬戶鎭은 거진(巨鎭)·제진(諸鎭)에 해당하는 鎭堡로서⁷⁸⁾, 군사제도상으로는 수령 이상의 직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察訪司는 수령인 현감(縣監)과 품계가 같은 중6품 지방 행정직, 찰방이 파견되던 지역이다.⁷⁹⁾ 지리지는 위계에 따라, 찰방이 파견된 역과 관할 속역이 서술

Tab.4 Contents of geography books compiled by a private individual

Donggukyeoji 東國輿地志(17C)		Yeodobiji 輿圖備志(19C)	Daedongji 大東地志(19C)		
各邑: (A)		各邑: (B)	各邑		
早田 / 水田	建	邑號	沿革		
建置沿革 / 郡名		官員	古邑 (1)		
形勝 / 風俗 / 山川		宮室	坊面		
土產	置	坊面	山水 (2)		
城郭		time · material · size	古邑		
公署	觀察使營	山川	島嶼	城池	
	節度使營		形勝		營衙
	僉節制使鎭		風俗		鎭堡 (3)
	萬戶鎭	土產	烽燧		
察訪司	食	水利	倉庫		
學校		書院	驛站		
宮室	客館	貨	倉庫	場市	
	鄉射堂		牧場		津渡 (4)
	鍊武廳		城池		牧場
樓亭	武	營衙	土產		
臺榭		(廢)鎭堡	宮室		
倉庫	都倉	備	烽燧	樓亭	
烽燧	-		戰略 (7)	廟殿 (6)	
郵驛	站·院		驛道	陵寢	
關梁	津渡	道里	津渡	壇壝	
祠廟	祀壇		嶺路	祠院	
陵墓 / 寺刹 / 古蹟	名宦 / 流萬 / 人物		橋梁	典故 (7)	

1. Addition:
 - (A) distance to boundary from all direction (Unit: 里)
 - (B) list of main public building
2. Notes: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about the city
 - (i) city type (ii) emblem (iii) route (iv) commemoration
 - (1) district (2) environment (3) function (5) finance (7) war history
3. Order of items are arranged as which recorded in the list.
4. * is added contents.

77) 대전은 『經國大典』(1485년, 성종16)·『大典通編』(1785년, 경조9)·『大典會通』(1865년, 고종2) 등(1746년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은 戶典·刑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고, 이 외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법전이 편찬되었다. 대전은 조선시대 법의 큰 틀을 제시하지만, 수시로 편찬하기가 힘들어 시대변화가 바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점은 지리지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78) 『大典會通』 「兵典」 참조.

79) 『大典會通』 「吏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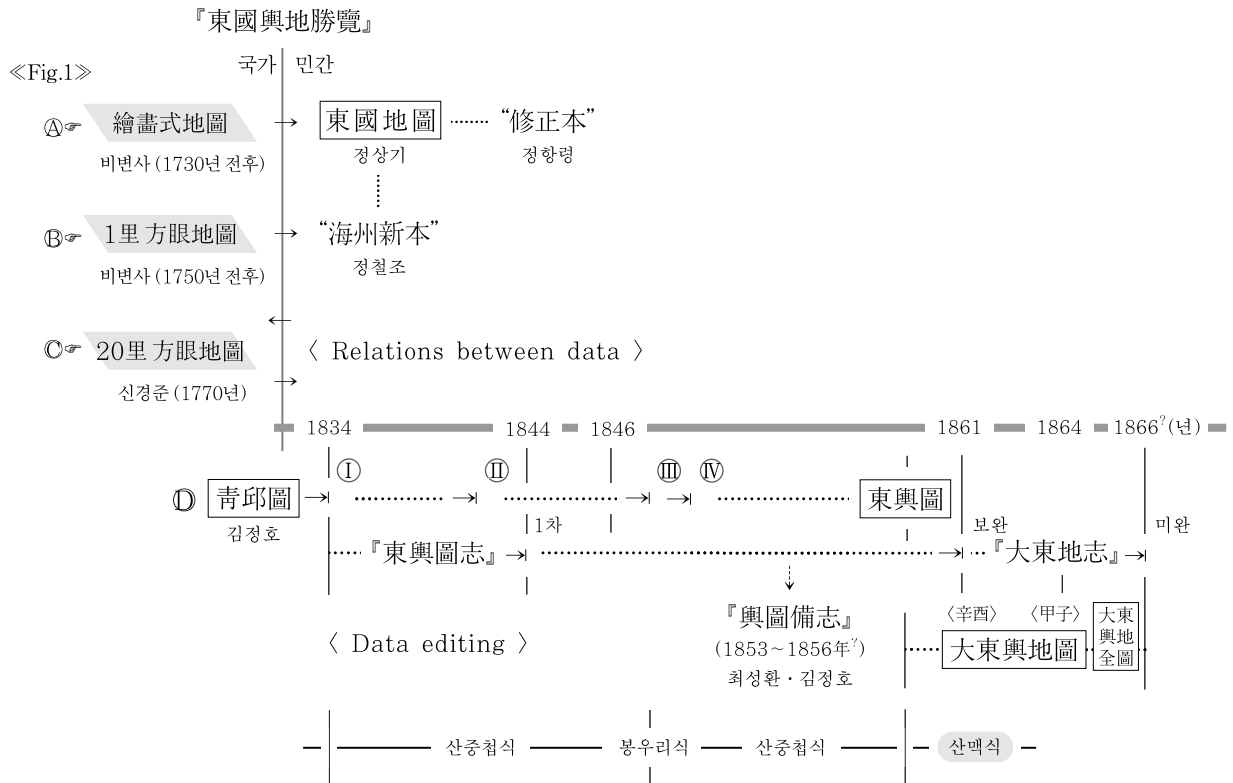


Fig.3 Development of ma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process of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production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⁰⁾ 군주가 일상 정무 수행시 참고 하도록 편찬한 『만기요람』에는 역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봉사(奉使) 인원을 병조에서 관리하고, 역마의 사용이 감영·군영과 관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⁸¹⁾ 결국 역은 법제상 일종의 행정 도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제도와 관련 속에서 지리적인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Fig.3 <자료편집>>⁸²⁾으로 요약되는 『대동

여지도』의 제작과정은 지도와 지리지를 분리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호의 지리지는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다.⁸³⁾ 지도제작 초반의 『청구도』가 각종 자료가 기재된 형태인데 반하여, 『여도비지』 편찬 단계의 지도에서는 지지 정보가 거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도와 지리지를 분리하고자 하는 구상은 『여도비지』 단계에서 시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⁸⁴⁾ 결국 『대동여지도』와 짝을 이루는 『대동지지』의 항목구성은 지도의 내용을 보충하고, 지도의 속성이 반영된 분류 형태로 재편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의 요체를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를

80) 『대동지지』에는 각 도별로 맨 끝에 烽燧와 驛站의 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驛站]은 찰방이 파견된 역과 속역을 위계상으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는 이러한 위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동지지』 각 군현별 [驛站]이나 『여도비지』의 <驛道> 또한 관할 속역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서술상의 위계는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항목의 범주상 ‘察訪司’와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驛은 찰방이 파견된 지역에 한정된 것이므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81) 『(國譯)萬機要覽: 軍政編1』, 민족문화추진회, 1971, 88쪽, 「驛遞」 [總例] 참조.

82) <Fig.3 <자료편집>>은 『청구도』에서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다음 문헌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이기봉,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새문사, 2011;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여편고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2. 김정호의 3대 지도와 3대 지리지는 이제 옛 말이 되었다.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는 현재 국내에서 집계된 것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 김정호의 편집물은 『동국여지승람』부터 당대 상당수의 지도와 지리지를 섭렵하여, 오랜 기간의 정보수정을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다. 『청구도』 Ⅲ단계에서 선택한 봉우리식은 많은 기록을 담기위해 선택한 방

편이다. 물줄기만으로 산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원리에서 나온 발상이지만, 비전문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이므로 Ⅳ에서 다시 산줄기를 그려 넣게 된다. 이후 제작된 지도는 지리지가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과 별도의 지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지도의 속성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산줄기의 표현을 산중첩식·봉우리식·산맥식 등으로 명명하였다. 산중첩식은 봉우리를 연속해서 그린 연맥식(緣脈式)을 의미한다. 목판본의 표현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산중첩식으로 별도의 이름을 붙였다. 산줄기는 중요한 표현요소는 아니었지만, 목판으로 판각되면서 산줄기의 중요도가 반영되었다.

83) 이기봉, 같은 책, 2011, 156쪽 참조. 『東興圖志』(標題: 大東輿地通考), 嶺南大學校圖書館 所藏 참조. 『동여도지』는 책자크기, 첩삭·교정의 흔적, 완성기간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존 지리지를 정리할 목적에서 작성된 문헌으로 추정된다.

84) 이기봉, 같은 책, 159~162, 166~172쪽 참조.

분류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물은 제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편집된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營衛로 시작되는 『대동여지도』의 지도표(《Fig.4》)이다. 營衛의 위계가 『대동지지』와 다른 것은(《Tab.4》)(3) 참조) 지도의 역할이 균현 중심으로 서술된 지리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營衛는 邑治보다 상위 개념으로, 城池는 邑治와의 관계 속에서 편성되어 『東輿圖』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鎭堡·驛站·倉庫 등은 각각 하나의 기호로 통일되면서 내용상의 위계가 반영되지 않았다.⁸⁵⁾ 驛站에는 관할 屬驛·騎撥·步撥 등이 포함되어 있고, 倉庫⁸⁶⁾에는 司倉·江倉·海倉·社倉·漕倉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동국여지』보다 내용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를 통해 『대동여지도』는 기호라는 압축적이고 개념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전체 흐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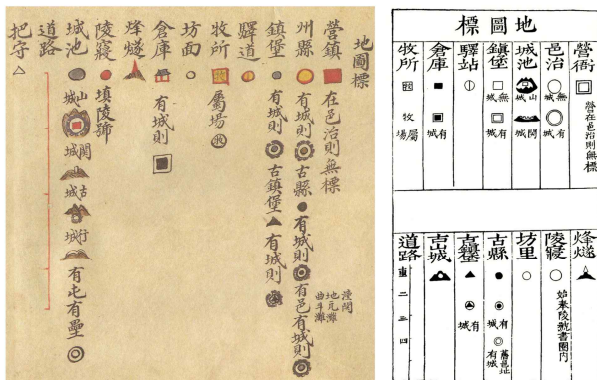


Fig.4 map legend: Dongyeodo(left) and Daedongyeojido(right)

『대동여지도』에서 파악된 주요 시설물은 모두 균현 내에서 관리되던 건축물이다. 그 위치는 통상 읍치를 중심으로 파악되었지만, 관련 시설물 간의 상대적인 위치 속에서 서술되기도 하였다. 지도에 표시된 행정구역(坊里)은 대부분 驛站·倉庫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압축하여 정리되었다. 아울러 지도에 표현된 주변 환경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장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다.⁸⁷⁾ 또한 사찰을 일종의 관방치로 인식하고, [山川]조에 산지명과 함께 기록한 것⁸⁸⁾은 지도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85) 鎭堡·驛站·倉庫 등의 내용상 위계는 『대동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호는 지도의 각 항목을 기호로 통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지리지에 따로 서술하여, 지도와 지리지의 역할을 분리하였다.

86) 「大東地志 門目」[倉庫] 各邑例有司倉沿江沿海納稅之邑皆有江倉海倉以使其漕運其遠邑之坊設社倉以使其民輪納營鎭山城以貯兵餉三南則置漕倉俱有監捧領運之官

87) 『대동여지도』의 축척은 연구자에 따라 대략 1:16만~21만 정도로 본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관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도에 표현된 주변 환경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도비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여도비지』와 『대동지지』는 전체구성·분류·서술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논리로 전개되고 있지만, 군사정보를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근본 취지가 같다. 『여도비지』의 편찬목적은 도서명이나 [武備]라는 항목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본문에 앞서 역사와 자연환경·경제 등을 먼저 서술한 것은 군사시설과 기반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武備] 다음에 [道里]가 뒤 따라 오는 것은 항목간의 관련성과 도로의 성격을 암시한다. 『여도비지』의 역사([建置])가 <宮室>을 포함한 당대 시점의 기록이라면, 『대동지지』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를 서술한 것이다(1). [形勝]은 主鎭·巨鎭 해당군현에만 기록하여, 진관제도의 중요성⁸⁹⁾을 새삼 강조했다(2). 이러한 서술은 『여도비지』와 마찬가지로 곧이어 서술될 시설물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지리지의 핵심이 ‘제도’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리지에 반영된 도시 관련 정보를 《Fig.5-①》과 같이 조선시대 도시의 조직체제로 재해석하였다. 이것은 시대별 치소변동에 따라 경관이 변화되었다는 기존 학설에 더하여 군사제도가 도시의 유형, 도시간의 관계성, 입지선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첫째 지리지에 반영된 군사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수반한 ‘도시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군사제도는 국토의 개발과 운영상을 제시하여, 도시의 발전과 공간 변화에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둘째 수령이 관할하던 균현에는 영아·진보·역 등 치소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는 도시가 공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수지역은 건축적인 특성과 도시의 역할 규명을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의 또 다른 유

88) 「大東地志 門目」[山水] (중략) 或古刹盤據者宜守也 (후략) ◎寺刹 (중략) 大刹名庵於所在之山 (후략).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에 수록된 사찰은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寺刹錄』(국립중앙도서관, 위창古1702-4)나 『梵宇攷』(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21-190)와도 내용이 상이하여 수집된 사찰이 어떤 성격을 지닌 정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89) 『대동여지도』에서 씨족마을은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다. 거의 유일하게 하회마을이 확인되는 이유는 진관제도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진관제도는 조선 전·후기 제도상에 차이가 있다. 조선 후기 체제는 유성룡이 주창한 것으로, 하회마을은 서애의 탄생지를 의미하는 동시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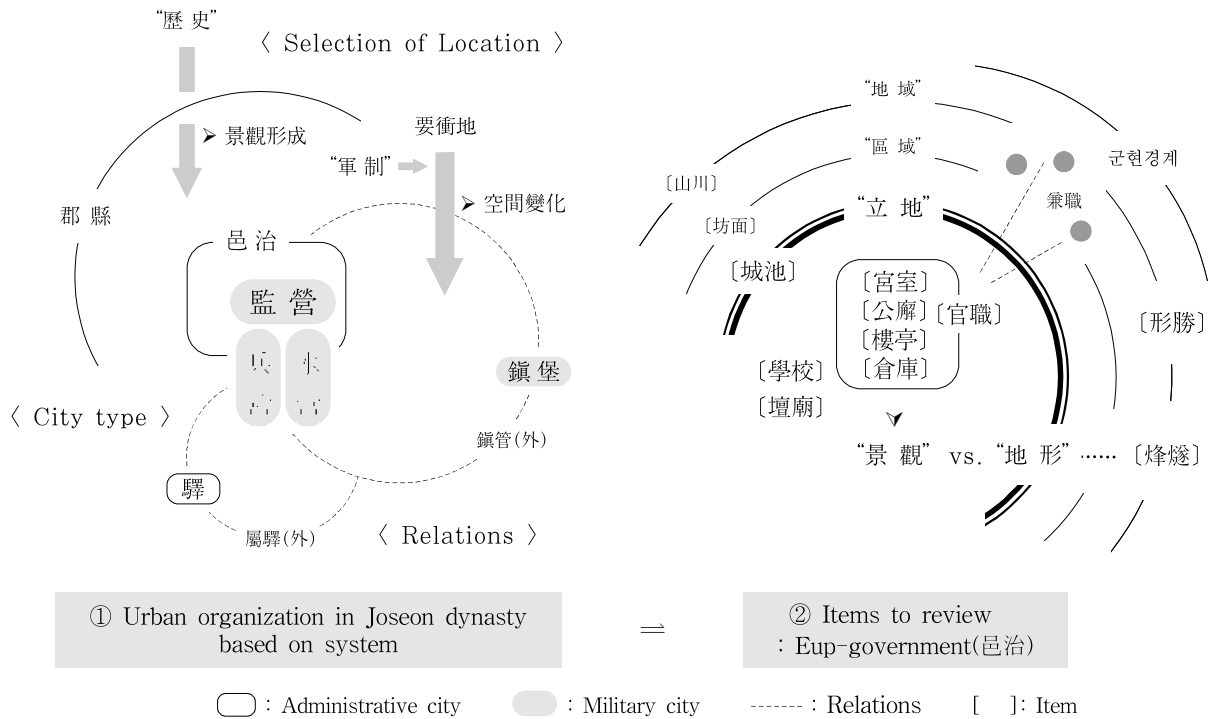


Fig.5 Key map of study

형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읍치·영아·진보 등 도시간의 관계성은 지방군사조직(진관제도)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행정도시인 읍치는 영아·진보와 함께 조직화되면서 군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역은 이러한 군사 도시간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군현 중심으로 서술된 지리지를 살펴본 결과 읍치 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는, 《Fig.5-②》와 같이 건축과 경관의 측면에서 관련 항목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것은 읍치뿐만 아니라 영아·진보·역 등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구역 등 전체흐름 속에서 파악된 자연환경은 도시의 입지와 경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 지역에서 중요하게 파악된 산줄기 중에서 ‘形勝’은 지역의 주요 맥락을 짚어주는 역사·지리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으며, ‘烽燧’는 지형의 특성을 매개료한 입지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References

1. 『靑邱要覽』 『東輿圖』 『大東輿地圖』
2. 『經國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以上, <http://e-kyujangak.snu.ac.kr>
3. 『全國地理志』,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2.
4. 『輿地圖書』,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73.
5. 『東輿圖志』(標題: 大東輿地通考), 嶺南大學校圖書館 所藏

6. 『輿圖備志』, 韓國人文科學院 影印本, 1991.
7. 『大東地志』, 漢陽大學校附設國學研究院 影印本, 1974.
8. 『邑誌』,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82.
9. 『朝鮮時代私撰邑誌』, 韓國人文科學院 影印本, 1989.
10. 『(國譯)萬機要覽: 軍政編1』, 民族文化추진회, 1971.
11. 朴仁鎬,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 以會文化社, 1996.
12. 裴祐晟,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一志社, 1998.
13.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혜안, 2002.
14. 李起鳳, 『근대를 들어올린 거인, 김정호』, 새문사, 2011.
15. _____, 『조선의 지도 천재들』, 새문사, 2011.
16. 韓國歷史研究會,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Acanet. 2000.
17. 李存熙, 『朝鮮時代 地方行政制度研究』, 一志社, 1990.
18.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2, 1968.
19. Yang, Bo-Kyung, 「A study on the Nature and Geographic Thought of Ūp-chi(邑誌) in the Chosŏn Dynasty」,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20. Kim, Hun-Gyu, 「A study of the formation and planning principles of the provincial city “Eupchi” during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6, No.2, 2007.
21. Yoon, Hong-Key, 「A Carto-genealogical study of Taedongyojido(大東輿地圖)」,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 Vol.3, 1991.

접수(2012. 8. 14)

수정(1차: 2012. 10. 10, 2차: 2012. 10. 22)

게재확정(2012. 10. 29)